

한국 농촌사회의 특성과 농촌관광 개발

- 일본과의 비교 -

문옥표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류학)

1. 들어가는 말

농촌의 쇠퇴는 공업화, 도시화를 경험한 전 세계 모든 사회의 공통적 현상이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 산업국들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앞서 예외 없이 농업의 쇠퇴, 이농에 따르는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 과소화(過疎化), 노령화,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하였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세계화와 그에 따르는 농산물의 지구적 유통구조의 확립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보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가족농적 경영에 기초해 있는 농업에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농업과 농촌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과 문제들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수없이 논의되어 왔다.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농업수익을 보완하여 농촌의 경제와 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농공단지의 조성 이외에 농촌관광의 개발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연구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에 걸쳐 수많은 관광농원과 민박마을, 농어촌 휴양단지 등을 조성하였다.¹⁾ 그러나 그와 같은 시도들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보다 최근 들어서는 환경, 문화, 체험, 만남 등을 키워드로 하는 보다 종합적 의미의 농촌관광 내지 '그린투어리즘'을 구상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하여 현재 전국에 대략 300여 마을 정도를 선정하여 다양한

내용의 "농촌관광마을"로 지원하고 있다(농림부 2003).

그렇다면 농촌을 살리기 위한 그와 같은 필사적인 시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우선 필자가 그간 비교적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하여 왔던 일본의 사례들과의 구체적 비교를 통하여 드러나는 한국 농촌사회와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이 질문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문옥표 1991, 1994, 1998a, 1998b, 2000a, 2000b; Moon 1997a, 1997b, 2002). 여기서 한국 사회와 일본의 비교를 시도하는 것은 단순히 일본이 하나의 선진적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이기보다는 비교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포착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농촌은 경제구조의 면에서 우리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면서도 사회조직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준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는 한국 농촌의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준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2. 농촌관광의 이념과 지속가능성

농촌관광의 개발 및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한국 농촌 사회의 특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농촌관광이 성립하고 유지될 수 있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

1) 1984년 이후 정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을 통하여 2000년까지 491개소의 관광농원, 266개의 민박마을, 8개소의 농어촌 휴양단지의 조성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정기환 2001: 5-6).

은 우리 사회의 현 단계에서 '농촌관광'의 원활한 발전이 어려운 것은 농촌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농촌관광의 주된 소비자인 도시인의 관광행태, 인식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 수요의 창출과 인식전환 운동의 필요성

흔히 녹색관광(*green tourism*), 지역관광(*regional tourism*)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 농촌관광이란 "농촌의 특성을 바탕으로 작은 지역사회 속에서 사람들 간의 만남을 증시하는 관광행위를 의미"한다고 한다(정기환 2002: 3). 여기서 농촌의 특성 혹은 농촌성(*rurality*)이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지역성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것으로 특정한 지역에 독특한 생활양식, 산물 내지 산업, 자연, 문화, 역사, 민속 등 거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이다.

그러나 농촌관광(*rural tourism*)을 자연관광(*nature tourism*), 문화관광 (*culture tourism*), 산업관광(*industrial tourism*), 역사관광(*historical tourism*) 등과 구분해 주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향한다는 점에 있다.²⁾ 즉 다시 말해 역사유물이나, 온천, 이름 난 산이나 강 등 일반적인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이라도 평범한 농촌의 생활양식, 농촌에서의 삶에 접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관광이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수요는 단순히 소득 증대나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자동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농촌성의 주된 소비자로 등장하는 도시인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것은 경제생활의 향상 이외에 가치관의 전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농촌은 낙후, 빈곤, 미신, 무지, 비합리성, 지양해야 할 악(惡)으로서의 전통 등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탈근대 사회에서 농촌에 관한 담론은 도시인들이 근대화의 과정에

서 상실한 모든 것을 보전하고 있는 곳으로 이상화되어 노스탈자의 대상이 된다. 즉 농촌은 도시인들의 상상 속에서 따뜻한 인심과 도시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경쟁에 대해 서로 돕고 사는 상부상조의 공동체 정신이 아직 살아 있으며, 산업화의 과정에서 파괴되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남아 있고, 세속화된 도시생활에 비해 종교적인 성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서구화, 근대화의 과정에서 변질되고 사라져 버린 우리 고유의 것, 즉 정체성의 원천이 되며 선(善)으로서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믿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선진 산업국에서 나타나는 농촌 관광 수요의 증가, 즉 농촌을 찾는 도시인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농촌에서 자신들의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을 발견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진화론적 입장에서가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이념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충분히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흔히 오늘날 도시인들은 "반-도시적, 전원적 삶을 동경하며 청정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으나(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2), 여기서 '전원적 삶'과 '농촌의 삶'은 다른 것이며, 또한 청정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곧 총체적인 생활문화환경으로서의 농촌과 그 주민의 삶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농촌관광의 확산을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투자 및 지원만큼 도시인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언설의 확산과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촌을 도와야 한다는 민족적 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상위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서 농촌을 새롭게 위치짓는 작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작업에는 정부나 미디어 혹은 외부의 운동단체들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

2) 관광의 유형적 분류에 대해서는 Graburn (1983), Smith (1989)을 참조할 것.

자신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³⁾

2) 관광자원으로서의 농촌주민의 삶

농촌관광이 사람들과의 만남, 교류를 지향하는 관광형태인만큼 농촌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핵심적인 관광자원으로서 주민의 삶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경북 안동시의 하회마을을 ‘농촌관광’의 전형적 예로 들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것은 그 마을이 풍부한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을이 관광의 대상으로서 매력을 갖는 것은 아직도 그 안에서 전통적 의례나 생활규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다.⁴⁾ 다시 말해 아직 그 마을이 “살아 있는” 하나의 촌락공동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있으며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하회마을은 이미 죽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Guillemoz, 개인면담)], 그 점에서 우리는 하회의 사례를 보다 큰 범주의 농촌관광 사례의 하나로 살펴 볼 수 있을 듯하다.

인구 200여명 정도의 하회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지난 5~6년 간의 짧은 기간 동안 급속히 증가하여 1999년에는 연 100만 명을 넘게 되었다(문옥표 2000a: 89). 이러한 급격한 증가 속에서 주민들은 물 부족, 화장실, 쓰레기 문제 등뿐 아니라 거의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상적 삶이 관광객들에게 노출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상업활동을 경시하는 양반의 후손들인 원주민을 대신하여 그들이 비워 놓고 떠난 집이나 새로이 마을 내에 신축되는 초가집들(양반 가옥 외에는 신축이 허가된

다) 외부로부터 식당, 민박 등을 경영하기 위해 이주해 들어오는 전입 인구의 증가로 인해 촌락공동체의 기능 자체가 급속히 침해되고 있다. 반면 문화재로 지정된 양반가옥들의 경우 내부 수리조차 심하게 제한되어 외부로 나갔던 소유주들의 귀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관광정책은 관광객의 수를 늘리는 방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주민생활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종합관광개발 계획에 의거하여 안동시는 하회마을 내에 유스호스텔과 간은 대규모 숙박시설, 체험장, 위락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한 계획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마을의 경관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파괴할 뿐 아니라, 결국 주민생활을 더욱 더 불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며 궁극적으로는 원주민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다수의 이주민들은 원주민과 달리 상업활동을 목적으로 전입한 사람들인만큼 마을 경관의 보존 등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결국 하회마을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관광정책에는 관광자원의 핵심을 구성하는 주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만일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하회마을 관광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상업화의 진전과 지속가능성

하회마을뿐 아니라 농촌관광이 주민의 생업과 삶의 방식을 주된 관광자원으로 하는 만큼 관광업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업이든 어업이든

3) 나는 일본의 무라오코시 운동이 그러한 의미를 갖는 지역주민 운동임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운동에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촌 주민은 교육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거나 화이트칼라 직업에 종사하며 도시에 살다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4) 관광객들은 단순히 양반 집을 보기 위해 하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양반을 함께 보기 위해 이 마을을 찾는다.

전통적 생업도 함께 지원하여 “농가 민박”과 같은 형태로 양자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농촌관광에 적합한 숙박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민박”이라는 숙박 형태의 장점은 그것이 사람들간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민박에서 묵으면서 관광객은 농촌주민들의 생활을 체험하고 그들과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마을 내에서도 민박업과 농업(또는 어업) 등의 분리된다면 이러한 본래의 목적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민박업과 같은 숙박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전업화가 진행될 경우 관광객과 주인은 단순히 서비스를 사고 파는 물인격적인 구매자와 판매자로 만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상거래의 상황은 농촌을 찾는 도시인들의 기대, 즉 도시인이 상실한 순박함과 인정, 따뜻함, 인간적인 면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배반하여 다시 찾는 행위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지의 경우 농촌관광 형태의 관광객들은 매년 한 지역을 반복하여 방문하는 특징을 보이며 연쇄적으로 다른 손님을 같은 곳으로 소개하여 주는 경향도 나타난다.⁵⁾ 그것은 관광객과 주인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만일 그와 같은 ‘단골 관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 농촌관광의 지속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점 이외에도 농촌관광 사업의 추진에 가장 주요한 고려 사항의 하나는 소위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의 문제이다. 즉 다른 종류의 관광 개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농촌관광의 경우 그 성격상 개발이 진행된다면 될수록 도시인들의 노스탈자의 대상으로 상품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되는 전통적 생활문화, 마을 경관, 자연 환경, 역사, 민속 등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딜레

마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체험장, 공연장 등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도로의 확장, 건물의 신축이나 개조, 현대식화장실이나 상하수도 시설, 대규모 주차장, 음료 자판기, 공중 전화, 이 모든 것들은 관광산업의 추진에 필수적인 것이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농촌문화의 고유성이 파괴되고 도시문화와의 차이를 잃게 된다.

농촌관광의 추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한 방법은 사라진 전통민속의 재현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대부분의 일본 농촌에서는 떼풀(茅)로 지붕을 이은 전통적인 초가(‘카야부키’라고 하며 대부분 이층으로 한국의 농가에 비해 그 규모가 몇 배에 달한다)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관광상품으로 그러한 전통 가옥을 복원하고 민박형 숙박업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재현된 전통’은 물론 고유성의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나, 농촌관광의 개발과정에서 매우 널리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이다. 단지 가옥과 같은 물질문화 뿐만 아니라 풍습이나, 의례 등도 재현되어 관광상품으로 개발되며, 이러한 상품화가 더욱 진행되면 농촌관광은 있는 그대로의 농촌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농촌성’을 관광객을 위해 연출하는 형태의 농촌관광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농촌관광의 이념적 성격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종류의 ‘가짜의’(unauthentic) 자원을 가지고 그것의 지속가능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한국농촌사회의 특성과 농촌관광 - 일본과의 비교

농촌관광 개발과 관련된 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일관되게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는 인력확

5) 필자가 조사한 일본 群馬縣 片品村의 하나사쿠 마을의 한 민박인 “고향의 집”의 경우는 회원제로 운영되어 한번 방문했던 사람과 그들이 소개하는 사람들만을 받아들임으로써 고객을 관리하였다.

보의 문제이다. 즉 “주민의 노령화는 농촌관광 사업의 추진에서 심각한 인력부족과 호응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28). 앞서의 논의와 연결해 볼 때 이러한 ‘인력 부족’의 문제는 단순히 관광업에 종사할 인력의 확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좀더 넓게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주민의 확보, 나아가 그 지역을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귀향민의 확보와 같은 문제들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필자가 연구하였던 일본 중부의 한 마을의 경우는 지속적인 이농으로 인한 과소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업의 개발에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나마 젊은 층의 귀농을 유도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문옥표, 1994)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가족구조, 상속유형, 남녀분업구조 등 몇 가지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가족구조와 상속유형

서구 산업사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난 대규모의 이농과 그에 따른 농촌인구의 과소화, 고령화의 문제는 일본과 한국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현상이다. 그러나 농촌의 인구가 절대수의 면에서 비슷한 정도로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농의 패턴 및 잔류 인구의 구성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그것은 주로 가족 계승의 개념상에 나타나는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구 사회와 달리 일본과 한국에서는 가족의 연속성이 중시되며 모든 사람은 조상에서 자손으로 영속되는 조직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의 전통사회에서 가족 계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家産과 家業을 포함하는 家(이에)의 계승이었다. 반면 우리의 경우 계승은 무엇보다 개인의(부계) 혈통 및 제사의 계승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대를 잇는 자’가 반드시 특정 지역사회에 뿌리

를 둔 가산과 가업을 포함하는 집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시대에나 오늘날에나 집을 떠나, ‘출세’하여 부모보다 좀더 나은 직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효도의 길로 인식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이농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에 비해 한국농촌사회에서 전가족이 이동하는 소위 거가이농(學家離農)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부모가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 중 하나가 남거나 혹은 되돌아와 하나의 가업으로서 농가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훨씬 희박하다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혈통과 제사를 계승하는 권리와 의무는 절대적으로 장남에게 있으며 그것은 장남이 어디에 거주하는가와 관계없이 관념상 다른 형제나 자매에 의해 쉽사리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명치 이후 장남 단독 상속이 법제화되었으나, 장남이 이에 계승을 포기할 경우 그것은 자녀 중 누구에 의해서라도(심지어 데릴사위나 양자에 의해서도) 대체가 가능하며 그 경우 집과 농토를 포함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 온 ‘가산’은 계승자에게로 넘어간다. 이 점은 2차대전 이후 신민법에 제정된 균분상속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농지 등 부동산은 이에를 계승하는 자녀에게로 상속되며 다른 자녀들은 교육비나 결혼 혹은 이농시 부모로 받는 경제적 도움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대체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농촌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나 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비율이 일본의 농촌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형태상의 핵가족화의 진전도 두드러진다. 반면 필자가 조사한 일본의 농촌에서는 관광업이 발달한 민박부락에서나 농촌부락에서나 모두 비록 가족의 크기는 감소하였어도 구성에 있어서는 3세대 이상의 가족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도 매우 낮았다(2.5%, 1990년대 초 자료). 또한 일시

적으로 자녀들이 떠나있는 경우라도 부모가 연로하여 은퇴할 시기가 되면 자녀 중 한 명이 이를 계승하기 위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부모가 전업농인 경우 계승자녀가 돌아와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비해, 민박업 등 관광과 관련된 일과 겸업을 할 경우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데 훨씬 유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스레 젊은 세대가 관광관련 일에 종사하고, 부모세대가 농업을 계속하며 민박업 등을 돕는 형태의 세대간 분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젊은 층은 또한 대부분 도시생활의 경험이 있으며, 요리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인터넷 등 정보의 활용이나 접근 가능성도 높고, 생활양식이나 기호 등의 면에서 관광객을 대하는데 부모 세대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민박업과 같은 관광업을 병행할 경우 후계자의 결혼상대를 확보하는 것도 전업농가에 비해 훨씬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이에 계승제도나 보다 융통성 있는 상속의 유형은 농업과 관광업을 결합하여 세대간의 분업을 통한 가업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능적으로 보다 적합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도 만일 그러한 형태로 젊은 세대의 농촌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농가 수익의 효과적인 증대 방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촌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생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계승의 관념이나 상속의 관행 등과 같은 문화적 요인들이 외부적 작용에 의해 그리 쉽사리 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가업계승과 같은 관념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기 어려운 이유가 여전히 유교적 직업관이 지배적인데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요인들은 더욱 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겸업유형과 남녀분업구조

농촌관광과 관련된 숙박업의 개발 등이 대가

업이나 외부 자본에 의한 것보다는 소규모의 자본에 의한 농가부업의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관광자원이 되는 농촌성의 유지 보존과 가장 양립하기 용이한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경우 전통적 유형의 위의 일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3세대 확대가족의 겸업형 가업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에 의해 그러한 방식이 어렵다면 부부간의 분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겸업농가가 전체 농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 농촌의 경우와 달리 한국 농촌의 경우 부부가 하나의 노동단위가 되어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겸업의 형태에 있어서도 일본의 경우 대부분 주부가 농업을 전담하고, 남편이 농외 직업을 가지는 방식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농외 취업자는 주부인 경우가 많다(문옥표 외 1993).

그러한 구조 안에서 숙박업 등 관광관련 직종을 농가 주부의 전업 직종으로 개발하는 것은 기능적으로도 매우 용이할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농촌관광지에 널리 퍼져 있는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소규모 숙박업소들, 즉 B&B(bed and breakfast)는 대부분이 농가 주부의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Long 1990). 그들은 낙농우나 양을 돌보는 등 농사일을 병행하면서 하나의 부업과 같은 형태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예가 많다. 즉 전통 농가의 구조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한 두 개의 방을 관광객들에게 대여해 주고 주부가 직접 요리한 농가 음식을 제공하며, 부업에서 손님과 같이 차를 나누기도 하고, 농사일을 보여주는 등 생활을 공유하는 것도 허락한다. 물론 한국 농촌의 경우 지속적인 가옥 개량 사업에도 불구하고 농촌가옥의 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아 (욕실, 화장실, 세면대 등 기본시설의 미비) 이처럼 손쉽게 숙박업소의 위생기준에 맞추어 농가를 민박으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비교적 소규모의 자본

이나 정부 지원으로도 농촌 주민의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관광업을 농가 주부 및 여성들의 직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옥 개량의 투자 이외에 요리 강습, 위생기준에 대한 교육, 특산물을 이용한 지역 요리의 개발 및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및 연수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4. 맺음말

현대 사회에서 농촌관광의 개발과 추진은 단순히 농가의 수익 증대를 유발하여 도농간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운동으로서만이 아니라 농촌문화, 지역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정체성 계발의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운동으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운동으로, 도시인과 농촌주민의 교류를 확대하여 과밀, 오염, 경쟁의 심화에 따르는 사회갈등 등 도시의 문제와 과소, 고령화, 후계자난, 결혼난, 사회적 활력의 상실 등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념 운동으로,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된다. 사회나 문화의 성격에 따라 관광의 행태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촌관광은 그 중에서도 탈산업사회적인, 탈근대적인 이념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관광형태일 것이다.

이 점에서 나는 한국사회의 경우 농촌의 여건뿐 아니라 도시인들의 의식에 있어서도 아직은 그러한 종류의 수요가 충분히 계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농촌관광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도시인들에 대한 계몽, 교육, 언설의 확산 등도 필요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그것은 특히 비록 한국인의 관광형태가 대규모 대중관광에서 가족관광, 소그룹관광, 체험관광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고 예측되고 있으나, 실제로 관광을 포함한 한

국인의 여가문화는 젊은 세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주가 되어 있어 어디를 가든 진정한 의미의 만남보다는 놀이가 있어야 하며, 체험보다는 구경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 글에서 지적하고자 하였던 것은 농촌관광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투자나 아이디어의 개발만이 아니라 농촌관광의 운영 및 추진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조직과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에 기초하여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태도가 요청된다고 하는 점이었다. 이를 위해 단편적으로나마 농촌관광의 발전과 관련되는 한두 가지의 측면에서 일본 농촌사회와의 비교를 시도하여 보았다.

【인 용 문 헌】

- 김일철 외. 1998. <종족마을의 전통과 변화: 충남 당진군 조리면 도리리의 사례> 서울: 백산.
- 농림부. 2003. "농촌관광마을 추진현황" (자료).
- 문옥표. 1991. "후기산업사회에서의 농촌의 위상: 1980년대 일본의 농촌부흥운동의 의미", <농촌사회> 창간호 : 211~251.
- 문옥표. 1994. <일본의 농촌사회: 관광산업과 문화변동>. 서울대학교출판부.
- 문옥표. 1997a. "Marketing Nature in Rural Japan," In Pamela J. Asquith and Arne Kalland eds. <Japanese Images of Nature: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London: Curzon Press.
- 문옥표. 1997b. "Tourism and Cultural Development: Japanese and Korean Contexts", In Shinji Yamashita, Kadir Din and Jeremy S. Eades. eds. <Tourism and Cultural Development in Asia and Oceania> Bangi, Malaysia.: Kebangsan University Press.
- 문옥표. 1998a. "일본농촌의 관광개발과 지역활성

- 화”, <농촌사회> 8집: 73~100.
- 문옥표. 1998b. “개발과 보전의 사이 : 일본 오제의 관광개발과 자연보호운동”, <국제지역연구> 7권 4호: 43~62.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 문옥표. 2000a. “관광을 통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3권 2호 : 79~110.
- 문옥표. 2000b. “그린투어리즘의 생산과 소비 : 일본 群馬縣 片品村의 ‘總合교류터미널’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0집: 205~232.
- 문옥표. 2002. “The countryside reinvented for urban tourists: rural transformation in the Japanese muraokoshi movement”, In Joy Hendry & Massimo Raveri eds. <Japan at Play: The Ludic and Logic of Power>. London: Routledge.
- 문옥표 외. 1993. <근교농촌의 해체과정: 경기도 파주군 J부락의 사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93-15.
- 정기환. 2001.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 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24권 2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방향 및 방안> 농림부 정책과제 중간보고서.